

2005년 서울시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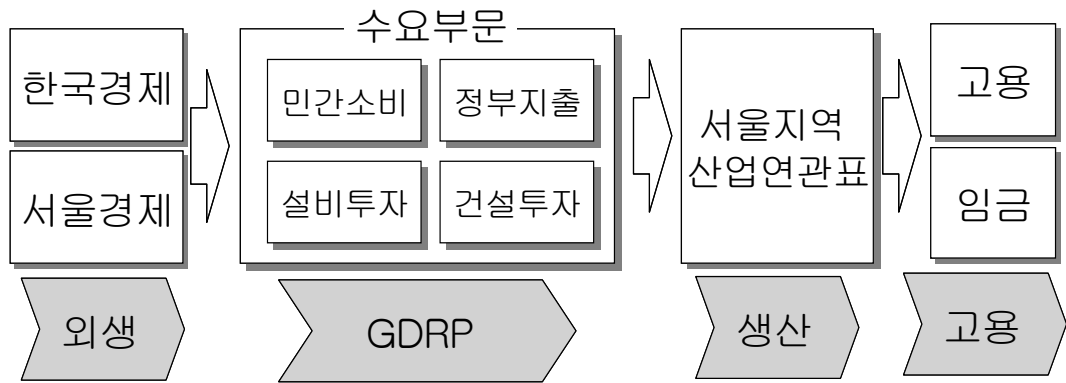
서울경제모형의 개발

- 경제의 글로벌경쟁 심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아직 지방정부가 지역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는 많은 제약점이 있음.
 - 특히 지방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GRDP, 소비, 투자 및 산업별 생산, 고용, 임금 등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와 이들 경제지표들에 대한 동향조사와 예측이 필요함
 -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부족하였고, 또한 지역단위의 경제예측은 전무한 실정이었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합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게 됨.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지역경제연구소(REAL: Regional Economics Application Laboratory)와 공동으로 서울경제모형을 개발함.
 - 서울경제모형의 구축을 통해 서울시의 경제성장, 산업별 고용, 생산의 전망은 물론 정책의 경제적 과급효과를 파악하여 서울시 산업경제 발전과 고용안정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서울경제모형의 개요

- 본 모형은 거시계량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을 결합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예측하는 동시에 산업별 생산량과 고용의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정책의 과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경제모형임.

- 지역경제는 독립된 경제주체이면서 동시에 국가경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단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 모형에서는 서울의 지역경제는 국가경제의 주요경제변수들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설정하였음.
- 모형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GDP성장률, 수출입, 실업률 등 외생변수들이 각각 서울시의 수요부문, 생산부문, 고용부문, 임금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서울시의 GRDP, 산업별 생산액, 고용이 결정됨.
 - 수요부문에서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변동, 이출입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수요부문의 결과를 가지고 25개 산업으로 분류된 서울시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업별 생산액이 전망됨.
 - 산업별 생산액에 근거하여 고용과 임금 부문을 전망함.



[그림 1] 서울경제예측모형의 구조

2005년 국내 경제전망

-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던 수출이 둔화되는 반면, 지난 2년간 침체되었던 민간소비는 소폭 상승하여, 2005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조정 등 소비위축 요인들이 점차 줄어들어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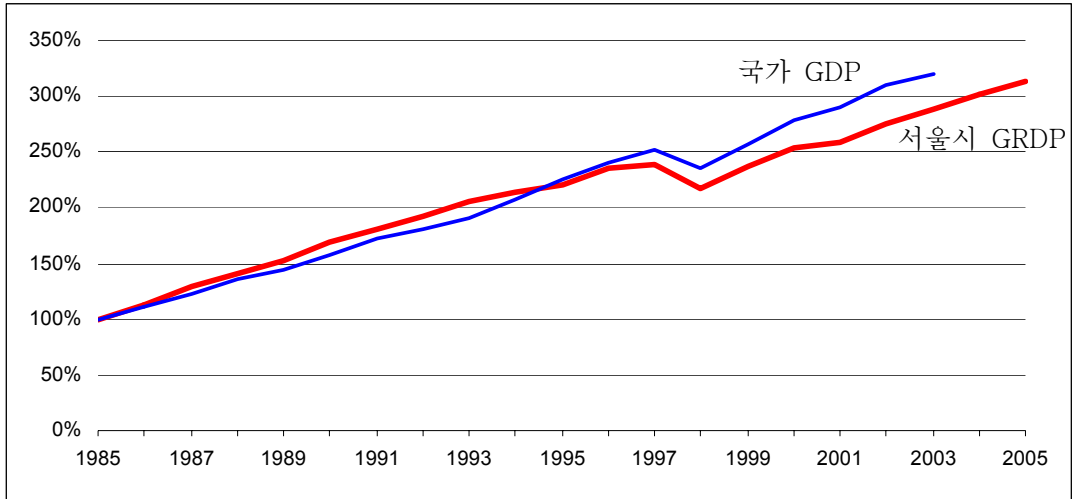
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고용부진 등의 영향으로 회복이 완만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국내 설비투자를 주도하던 IT투자가 둔화되겠지만, 원화가치 상승,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인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2004년의 투자부진의 효과가 이어지고, 주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 하락, 부동산안정책 지속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의 효과로 1-2%p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상품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가치 상승, 2004년의 높은 증가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로 인하여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상품수입은 내수회복,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실업률은 3.6%로 200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을 예상됨.
-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미약하고 국제유가와 임금이 안정세를 유지하여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2005년 서울시 경제전망

- 2005년 서울시 경제성장률은 2004년 4.2%보다 낮은 3.7%가 될 것으로 전망. 서울시 2005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국내 경제성장률 4.0%보다 낮음.
- 서울의 민간소비 성장률은 2004년 -0.4%에서 회복되어 3.6%가 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의 성장률은 2004년 4.4%보다 높은 5.2%가 될 전망.
- 건설투자의 성장률은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이 이어져 2004년 3.4%

보다 낮은 1.9%가 될 전망.



[그림 2] 국가GDP와 서울시GDRP 성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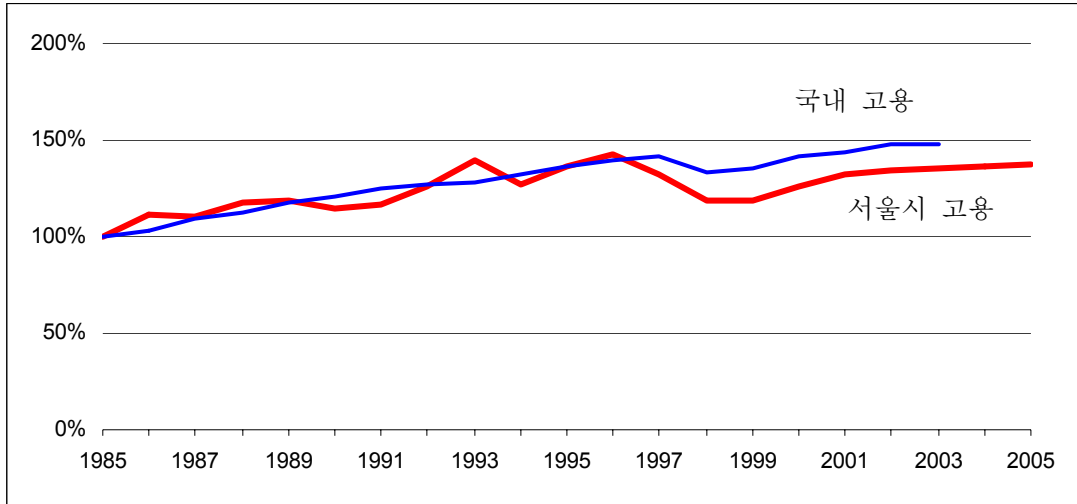
[표 1] 2005년 서울시 경제전망

(전년대비, %)

구 분	서울경제	국내 경제			
	SDI	한국은행	KDI	삼성	LG
경제성장률	3.7	4.0	4.0	3.7	3.8
민간소비	3.6	1.8	2.5	2.1	1.9
설비투자	5.2	5.3	8.3	3.9	5.1
건설투자	1.9	0.5	2.8	2.4	0.6
고용	0.6	-	-	-	-
상품수출	-	9.8	8.9	9.3	8.0
상품수입	-	9.3	11.7	14.2	11.9
실업률	-	3.6	3.6	3.6	3.6
소비자물가	-	3.0	2.9	3.3	2.8

* 서울시의 거시지표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2005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

- 2005년 서울시 총생산량은 3.7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산업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이 각각 1.62%, 3.9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부문별로 보면 정보통신, 컴퓨터, 가전제품을 포함하는 기계 제조업 생산액의 증가율이 3.69%로 가장 높고, 서울시 제조업 중 비중이 높은 의류·섬유업의 증가율은 0.66%로 소폭 증가할 전망.
 - 서비스업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이 1.41%로 성장이 부진한 반면, 운수·통신과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5.37%, 4.53% 성장하여 타 부문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서울의 고용증가율은 2004년 0.86%보다 낮은 0.6%로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2003년 이후 고용증가율은 1% 미만으로 2001년 고용증가율 5.29%에 비해 매우 저조함.
 - 산업부문별 고용을 보면 제조업은 0.03% 감소할 것이며, 서비스업은 0.8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음식료, 기타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류·섬유업과 정보통신, 컴퓨터, 가전제품을 포함하는 기계 제조업의 고용이 각각 1.75%,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업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과 도·소매업은 모두 0.23%로 성장이 부진한 반면, 운수·통신서비스와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2.1%, 1.5% 성장하여 타 부문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



[그림 3] 국내와 서울시 고용변화 비교

[표 2] 2005년 서울시 산업별 생산, 고용 성장률 (전년대비, %)

구 분	생산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서울시	3.72%	0.60%
제조업	1.62%	-0.03%
서비스업	3.93%	0.88%
의류·섬유	0.66%	1.75%
석유·화학·금속	-1.55%	0.42%
기계제조업(정보통신, 컴퓨터, 정밀기기 포함)	3.69%	1.08%
기타제조(자동차, 음식료 포함)	0.44%	-8.26%
전기·가스·수도	1.21%	-2.16%
건설	1.41%	0.23%
도·소매업	4.05%	0.23%
운수·통신서비스	5.37%	2.05%
금융·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53%	1.53%
공공행정 및 기타서비스	3.01%	0.93%

2005년 서울경제와 정책방향

- 2005년 GRDP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필요함.
 - 생산액의 증가폭에 비해 고용의 증가가 낮고 특히, 제조업은 생산은 증가하지만 고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에도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 고용흡수력이 높지만 인력난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착실하게 육성해 나갈 제도적 인프라 조성이 중요함.
 - 정부정책은 서울경제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은 있었으나, 서울경제의 위상을 고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은 없었음.
 -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 연구·인력개발,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의 배제가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규제철폐 노력이 필요함
 - 새해 새롭게 추진되는 산학연 협력사업이 공급자 위주의 R&D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즉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저성장과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빈곤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복지정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여야 함.

신창호 · 서울시경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sch@sdi.re.kr